

<2015년 6월 14일 주일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본 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18절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의 평강을 빕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로 역사하시니,
말씀을 들을 때 뜨거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 5월 21일 목요일부터 섭리사 전체는 선생과 함께
<40일 조건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선생은 1차로 40일을 하고, 2차로 또 할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환난, 개인 환난, 핍박, 전도, 관리,
선생을 위해, 자기를 위해, 생명을 위해서입니다.

◎ 섭리사 전체가 더욱 기도할 수 있도록,
오늘은 기도하라는 말씀을 해 주겠습니다.

<말씀 시작>

◆ 선생은 5월 15일 스승의 날 전부터,
아무리 급한 일이 있더라도 제쳐 놓고
가장 최우선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 이 말씀을 쓰기 전날 밤 7시 기도 때 기도할 것을 기도하고,
끝으로 성령님께 새벽 정한 시간에 꼭 깨워 달라고 기도하고,
꿈에 혼을 통해서 말씀하실 것을
확실하게 보여 달라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 선생은 새벽 정한 시간 1시에 기도하려면,
자정 즈음에는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늦어도 저녁 9시에는 자야 됩니다.

◆ 잠을 자고 깨 보니, 약속 시간 15분 전이었습니다.

일어나서 준비하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성령께서 깨워 주셔서 정확한 시간에 일어났지,
안 그러면 너무 피곤해서 일어날 수 없었다고 하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 혼을 통해
무슨 말씀을 해 주셨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해 보니, 성령님이 혼을 통해 보여 주신 장면들이 생각났습니다.

◆ 성령님이 꿈으로 보여 주신 장면은 이러했습니다.

선생이 내 방에 있는데, 인사탄 몇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전에 교회에 나오다가 나가서 악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서로 의식하면서
하고 있던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 이어서 한 장면이 또 보였습니다.

‘사람을 쏘는 노랑 야생벌 수백 마리’가
여름의 모기떼처럼 내 방으로 날아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그 벌들이 달려들어 나를 쏘 것 같았습니다.

그때 ‘선생의 어머니 흔체 같은 모습의 여인’이 나타나더니,
뿌리는 살충제를 들고 와서 방 안에 뿌리면서

“이러면 간단해. 저 벌 떼들이 다 없어져.” 하고 말하며
방 안뿐 아니라 집 주위까지 살충제를 뿌렸습니다.

그 순간 벌 떼들이 다 밖으로 날아갔습니다.

선생 손에도 순간 뿌리는 살충제가 쥐어져 있기에
선생도 조금 뿌렸습니다.

그런데 방바닥에 어린아이가 누워 있었고,
그 아이가 눈을 뜨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살충제를 잘못 뿌리면 아기 눈에 들어가게 생겨서
조심해야 했습니다.

◆ 이 꿈에 대해 성령님께 물으니, 성령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깨워 주었으니,
이제 네가 기도하며 실력껏 풀어 보아라.” 하셨습니다.

◆ 이날은 5월 17일 새벽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 ◎ 그럼, 성령님이 꿈으로 보여 주신 장면들을 통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선생이 실력껏 풀고 성령님께 확인받은 말씀을 전해 주겠습니다.

- ◆ <벌들>은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와 겨루는 사탄과 악한 세력’입니다.

우리를 쏘는 자들을 ‘벌들’로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생의 어머니>는 ‘천모 성령님’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신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벌들이 쏘지만,
뿌리는 살충제를 뿌리니 다 날아가 버렸지요?

이와 같이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도 가만히 두면 쏩니다.

<뿌리는 살충제>는 ‘기도와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행하고 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 ◆ 성령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와 <말씀>이다.

기도하고 말씀을 행하고 전해라.

그러면 벌들과 같이 **너희를 쏘는 사탄과 악의 세력**이 사라진다.
전체가 모두 기도하게 하자.” 하셨습니다.

- ◆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천군들도
‘그 조건’으로 심판하시고, 싸워 이기게 해 주십니다.

- ◆ 벌들에게는 ‘뿌리는 살충제’가 독약입니다.
살충제를 뿌리면 벌들은 못 견딥니다.

사탄과 악의 세력에게는 ‘기도’가 독약입니다.

기도하면, 마치 벌에게 살충제를 뿌리는 것 같아서
사탄과 악의 세력이 못 견디고 사라집니다.

- ◆ <사탄>은 항상 ‘악’과 함께 역사합니다.
항상 <사탄>이 ‘우리의 적’입니다.

기도하면, 모두 강철같이 강해집니다!

기도하면, 마음·정신·생각이 강해지고 담대해져서
사탄도 악도 다 이깁니다.

<잠시 쉬었다가>

- ◆ 이날 새벽에 2시간 동안 기도하고, 다시 <영의 세계>를 봤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다가 무릎이 아파서 다리를 풀기 위해 잠깐 누워 있었더니,
다시 ‘악의 영들’이 나타나 멀리 서 있었습니다.

기도하면, <기도>가 ‘무기’가 되어
악한 자들에게 날아가 그들을 없애 버립니다.

역시 <기도>는

‘사람을 쏘는 벌들에게 살충제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 ◆ 성령님은 이 계시를 보여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섭리인 모두 기도하자.

〈기도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의 적인 사탄과 악한 자들을 물리치고 이기기 위해서다.”

- ◆ 자기 방에 들어와서 자기를 쏘려 하는 벌들은
가만히 두면 자기를 쏘고 해를 줍니다.

사탄과 악한 자들은 ‘우리 영역’을 침범하며 해를 줍니다.

고로 살충제를 뿌리듯이 ‘기도’를 마구 쏘서 물리쳐야 됩니다.

- ◆ 〈섭리사 영역〉에 들어오는 사탄과 악한 자들을 놓고서도
하나님께 〈공의〉로 처리해 달라고 강력히 기도하여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 〈시대 말씀〉으로 무장하여 싸워 이겨야 됩니다.

- ◆ 사람을 쏘는 벌과 같은 사탄과 악의 세력은
가만히 두면 우리들을 100% 쏙니다.

고로 살충제를 살포하여 없애듯,

〈기도〉하며 〈시대 말씀〉을 강력히 쏘야 됩니다.

〈의인의 말〉은 역사하는 힘이 큼니다.

고로 ‘의인의 기도’와 ‘의인이 쏘는 말씀’은 강력합니다.

- ◆ 벌이 쏘려 할 때, 우리가 벌에게 “사랑해. 쏘지 마.” 해도
전혀 못 알아듣고 쏘 버립니다.

고로 벌이 쏘려고 오면

‘뿌리는 살충제’를 뿌려 없애는 것이 답입니다.

사탄과 악한 자들이 우리의 말을 들어줍니까?

일단 발견하면 무조건 썩 버립니다.

고로 살충제를 뿌리듯 <기도>입니다.

그리고 <시대 말씀>을 믿고, 강하게 말로 공격입니다.

◆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공의다. 너희 편이다. 악을 멸하러 왔다.” 하셨습니다.

<자녀>에게 손을 대면 <부모>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대적하듯,
<성령님>은 <하늘 신부들>에게 해를 주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고
그들이 행한 대로 공의롭게 대해 주십니다.

<잠시 쉬었다가>

◆ 기도하지 않으면, ‘강력한 영적 힘’을 못 느끼고 못 받습니다.

그러니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힘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깊이 깨달아지지 않으니 힘을 못 받고,
그 영향으로 육적으로도 힘이 나지 않고,
자꾸 자기중심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사탄이 조금씩 조금씩 틈을 타고 들어와서
나중에는 아예 그 생각을 지배해 버립니다.

별이 와서 자기를 쏘려고 하는데도 ‘살충제’를 안 뿌리니
100% 쏘여서 고통을 받듯이,
살충제와 같은 <기도>를 하지 않으니,
<말씀>에도 약해져서 전체적으로 ‘힘’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오래가다 보면,
<기도의 감>을 잃고 기도하는 것을 잊고 살고,
점점 <말씀>을 멀리하고 <주>를 멀리하게 됩니다.

- ◆ 섭리인들은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들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데 해이해지면, 모든 것이 해이해집니다.

강력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두 강력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살충제를 뿌려도 조금만 뿌리고 끝나는 격입니다.
그러니 뿌리나 마나입니다.

불같이 강력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벌에게 쏘이듯 사탄과 악한 자들에게 쏘입니다.

- ◆ 사탄과 악한 자들은
항상 ‘악한 말’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찢어
해를 주고 고통을 줍니다.

고로 <사탄과 악의 세계>는
항상 기도로 대적하고, 강력한 말씀으로 대적하고,
담대하게 행함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 ◆ <117 기도>도 아주 일부만 합니다.

◆ <휴거 300선>부터는

깊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이상으로 차원을 높일 수 없습니다.

깊이 기도하여 사탄을 완전히 물리쳐야

<주의 말씀>이 뇌 속에 온전히 들어가서 믿고 행하게 됩니다.

<하와의 표상, 휴거로 창조 목적을 이루어 승리한 섭리역사>에 대해
그리 말씀을 해 줘도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깊이 깨닫지 못하여

결국 일체 될 자와 일체 되지 못하고

<휴거 300선>을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강력히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사탄이 틈을 탐니다.

<잠시 쉬었다가>

- ◆ <기도>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의 소통과 교통’입니다.
‘간절한 대화’이며 ‘간구’입니다.

- ◆ 1시간 정도 조금 기도하려면, 정말 깊이 해야 됩니다.
2시간 이상 기도하려면, 구체적으로 말하며 간구해야 됩니다.

선생은 새벽에는 1시부터 4시까지 기도할 때가 있고,
낮에도 1~5시까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계속 기도만 하고 있으면 행할 것을 행하지 못하니

<기도 시간>은 조절해야 되겠지만,

필요할 때는 긴 시간 동안 기도하며 간구하기도 해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일을 하는 데도

몇 시간, 며칠, 몇 달의 시간이 들어갑니다.

어떤 것을 설득하는 데도 진지하게 설명해 줄 시간이 들어갑니다.

큰일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그러합니다.

- ◆ 그러나 30분, 1시간을 기도하더라도 ‘깊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깊은 기도〉는 ‘간절함’에서 나옵니다.

누구든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데,
기도하면서 즐기나 잡생각을 하면,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절 받지 않으십니다.

고로 ‘기도의 응답’도 못 받고, ‘축복’도 못 받습니다.

편지도 간절하게 쓴 것은 마음이 감동되어 답장을 깊이 써 줍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 ◆ 모두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선생이 편지를 일체 끊고
여러분을 위해 대신 기도해 줘야 됩니다.

수만 명이 해야 되는데, 선생 혼자 하면 기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선생 혼자 기도를 다 채우려면,
말씀도 못 쓰고, 잠언도 못 쓰고, 편지도 못 쓰고, 결재도 못 합니다.

그러면 섭리사 각 교회를 ‘말씀’으로 지도할 수 없습니다.

- ◆ 교회가 멀리 있어서 교회에서 새벽기도를 못 하는 사람들은
집에서 하면 되고, 또 가까운 교회에 가서 하면 됩니다.

- ◆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혼’ 으로 자기 모습을 보면,
기도하지 않은 표가 너무 확연히 납니다.

- ◆ <기도>는 본격적으로, 전적으로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무엇을 할 때 전적으로 해야 그 일이 표가 나지요?
<기도>도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집을 짓듯이, 차를 몰고 수백 리를 달리듯이,
공부할 때 빠져서 하듯이,
산을 오를 때 한두 시간을 가야 정상에 다다르듯이 해야 됩니다.

보통으로 기도하면 보통으로만 됩니다.

전적으로 기도해야 전적으로 됩니다.

- ◆ 제대로 기도하려면 ‘생활’ 이 잘돼야 합니다.

밤에 잠을 안 자고, 밤에 많이 먹고, 생활이 엉망이면
새벽을 깨울 수 없습니다.

- ◆ 그리고 기도할 때는

<사탄을 물리치고 악한 자들을 꺾는 기도>를
정말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 ◆ 선생이 기도하는 내용을 책으로 써서 모두 읽게 하면
모두 충격 받고 기절할 것입니다.

선생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뉴스를 보고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까놓고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 ◆ 기도를 깊이 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영계에 가면 다 보입니다.
그러나 전체가 같이 기도하지 않으니, 그만큼 힘이 적습니다.

- ◆ 선생이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잠을 조금 덜 자더라도, 다른 일을 조금 자르더라도
꼭 모두 같이 기도하자고 했는데
그렇게 말해도 기도를 안 합니다.” 했더니,

성령님은 말씀하시기를

“기도하지 않는 자는 그로 인해 고통을 당하게 되고,
기도하는 자는 그 조건으로 도움을 받게 된다.” 하셨습니다.

- ◆ 모두 기도하지 않음으로 고통을 당해 봐야
스스로 두려워서 그제야 기도하게 됩니다.

- ◆ 기도하지 않으면 개인도, 가정도, 민족도 힘들 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안 될 때입니다.

“성자가 떠나신 후에는

‘개인 환난과 어려움’ 이 있으니 꼭 기도해라.” 했습니다.

일본도 이제는 전쟁을 하겠다며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세계는 ‘서로 생각이 같은 나라끼리’ 뭉치고 있습니다.

- ◆ 이 시대는 <새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로 섭리인들이 책임을 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모두 “내가 시대를 책임진다!”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 ◆ 한 번 간절히 기도해 보고, 기도의 불을 받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자기 기도를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기도했구나.’ 하고 자기도 믿어집니다.

- ◆ 기도할 때 간절히 깊이 하지 않고,
 <자기에게 해당되는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사탄>도 못 없애고 기도를 끝내면 안 됩니다.

 거의 사탄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니,
 누구든지 기도하기 전에는 가장 먼저 사탄을 물리치고 기도해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깊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안 보여도 옆에 있다는 것을 절대 믿고,
먼저 사탄을 쫓아내고 기도해야 확실히 깊은 기도가 됩니다.

- ◆ <기도>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필요 없습니다.
 한 마디로 “기도해라.” 하면 해야 됩니다.
 왜요? 정말 기도하는 자만 <기도의 필요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 ◆ <기도>는 ‘삼위와의 소통, 교통, 대화, 간구’ 라고 했지요?

 사람과도 ‘소통, 교통, 대화’가 끊어지면 사이가 멀어지고
 결국에는 남남처럼 되어 버립니다.

 <하늘과의 소통, 교통, 대화>가 끊기면,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 힘이 없어진다고 했지요?

그로 인해 생활할 때도 힘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깊이 깨달아지지 않으니 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니 자꾸 자기중심으로 생각하게 된다고 했지요?

그러다 사탄이 조금씩 틈을 타고 들어와서

나중에는 아예 그 생각을 지배해 버린다고 했지요?

기도하지 않으니 ‘악한 사탄 마귀’를 없애지 못합니다.

고로 계속 사탄의 방해를 받아 고통을 받고 신앙이 힘들어집니다.

- ◆ 악한 사탄 마귀를 못 없애면 그로 인해 계속 힘을 뺏기고, 낙심하게 되고, 해를 당하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됩니다.

- ◆ 기도하는 것을 보면, 자기가 휴거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휴거의 영>은 그 전보다 7배나 강해져서 다릅니다.
고로 휴거된 자들이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잠시 쉬었다가>

- ◆ 교역자들 중 10분의 1정도는 기도가 강하고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약하다고 성령이 지적하셨습니다.

단상에서 불이 쏘아지지 않는 목회자는

성도들보다도 기도를 못 합니다.

10대, 20대도 기도를 깊이 하는 자들은 정말 깊이 합니다.

그런데 한 교회를 이끄는 목회자가 기도가 약하면

성도들을 영적으로 힘 있게 이끌 수가 없습니다.

강력한 기도를 하여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행하시게 해야 됩니다.
입에서 불이 나오고 기도한 것이 해결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들을 살립니다.

◆ 목회는 공무원 하듯 하면 안 됩니다.

<성자의 몸, 성령의 몸, 주의 몸>이 되어 해야 됩니다.

설교를 맡겼으니, ‘불과 심정을 던지는 책임’ 을 해야 됩니다.

또한 ‘모두가 말씀을 이해하도록 전달하는 책임’ 을 해야 됩니다.

단상의 권한은 ‘삼위일체가 주신 권한’ 입니다.

<삼위일체가 원하시는 것>을 해 달라고 ‘권한’ 을 주었으니,
그 권한을 받고 책임을 다하기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가>

◎ 말씀 서서히 마무리하겠습니다.

◆ 선생은 각 개인, 민족, 세계를 위해 기도하고,
사탄과 행악자들 두고 기도하고,
신앙이 병든 자들, 육신이 아픈 자들,
차 사고와 각종 사고 등
상상도 할 수 없이 많은 것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밥맛이 없고 정이 떨어져서 못 삽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꼭 그에 대한 응답을 받고 끝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이 그 문제를 잡고 있기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밭의 돌을 빼내듯, 밭의 가시나무를 빼내듯
끝까지 사정없이 기도하여,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고야 맙니다.

- ◆ 모두 선생과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를 쏘는 문제, 자기를 쏘는 못된 생각, 자기를 쏘는 어려움,
자기를 쏘는 사탄과 악한 자들을 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꼭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생명들을 놓고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각종 문제를 놓고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선생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농부가 밭에 난 가시나무를 캐내듯

어떤 문제를 놓고 사정없이 끝까지 기도하여

<해결을 받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이 그 문제를 잡고 있으니,

살충제를 뿌려 자기를 쏘는 벌을 없애듯

자기 문제를 잡고 안 봐 주고 고통을 주는 사탄을

기도함으로 썩 없애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도록 강력히,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 ◆ <3.16 때>도 왜 모르고 후회를 남겼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니 감동이 안 되고 몰랐던 것입니다.

기도한 자들만 영적으로 알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둔해서 귀한 날이 와도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결재가 나지 않아 원하는 것이 안 됩니다.

◆ 이미 <휴거>로 <창조 목적>을 완성하여

<승리한 섭리역사>를 놓고서도

왜 기뻐하지 못하고, 역사의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계속해서 곤고해하고 힘들어하며

세상으로,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이리저리 끌려 다닐까요?

역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사탄이 ‘그 마음과 생각’을 꼭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 곤고하고, 믿지 못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기쁨이 없고, 고통스럽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는 것입니다.

모두 본격적으로, 전적으로, 간절히, 강력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함으로 사탄을 몰아내고, 강철같이 강한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 5월 21일부터 <40일 조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섭리 전체를 책임지는 선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선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섭리 전체’에도 영향이 갑니다.

또한 사탄과 섭리사를 반대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악을 물리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모두 1차 40일 동안 선생과 같이 기도하고,

1차 40일이 끝나면 2차로 또 같이 기도합니다.

◎ 말씀 마쳤습니다.